

나스닥 선물(NQ) 회귀분석

3/31 저점 앵커 회귀 채널 및 금리인상·이란전 악화 시나리오 결합 방어선 산정
데이터 기준: 나스닥 선물(NQ) 일간 원자료 (~2026-08-20, 3/31 앵커 이후 100거래일) / 시나리오 자료: 웹검색 (2026-08-20~21 기준)

1. 회귀분석 방법론 및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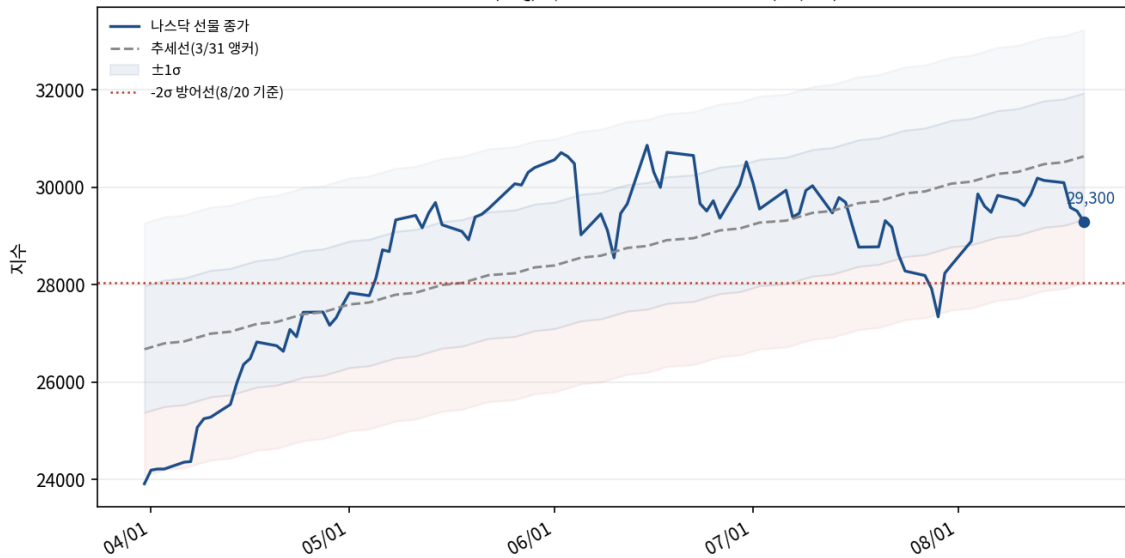
2026년 3월 31일(종가 23,915.00)을 앵커로 삼아 이후 100거래일 구간에 대해 선형회귀를 적용했습니다. 3/31은 1차 이란전쟁 국면에서 실제 하방이 확인된 시점으로, 기존 K200·삼성전자·SK하이닉스 분석에서 사용한 동일한 방법론을 나스닥 선물에도 일관되게 적용한 것입니다.

항목	값
표본기간	2026-03-31 ~ 2026-08-20 (100거래일)
회귀 기울기	+39.99pt/거래일
절편(3/31 시점 추세값)	23,896.15
R ² (설명력)	0.444
p-value	3.8×10 ⁻¹⁴ (통계적으로 유의)
표준편차(σ)	1,297.97pt
현재(8/20) 종가	29,300.50
현재 시점 추세선값	30,636.14
현재 이격도(z-score)	-1.03σ

현재가는 추세선 대비 약 -1.03표준편차 구간에 위치하며, 통상적 이레 기준(±2σ)에는 미달하는 정상적 조정 범위 내에 있습니다. R²=0.444는 중간 수준의 설명력으로, 추세선 단독으로 방향을 단정하기에는 잔차 변동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.

2. 회귀 추세 채널 그래프

나스닥 선물(NQ) 3/31 앵커 회귀 추세 채널 (~8/20)



파란선: 나스닥 선물 종가 / 회색 점선: 회귀 추세선 / 음영: $\pm 1\sigma \pm 2\sigma$ 밴드 / 적색 점선: 8/20 기준 -2σ 방어선

해설

- 20일선이 현 시점 저항선이라고 말하는 통계적 근거이고 이러한 통계는 미국의 파생 알고리즘과 결합하여 매우 강력한 추세윤택임의 원인이 되는 것이 현대 금융공학.
- 보수적 관점에서 반도체주에 의한 이례적 상승은 추세이탈 상방과열로 판단하여 비관론자들의 숏베팅을 강하게 근거. 반면 신기술에 의한 구조적 환경변화를 지지하는 긍정론자들은 이 상방 추세이탈이 과열이 아닌 “정상”적 상승임을 주장. 5월 이후 6월까지의 긍정론자의 우세, 7월 이후 현재까지는 부정론자들의 우세.
- 삼전과 하이닉스는 이에 따라 전통적 방식인 PBR 기준 최하 저항선 윗 부근에서 반등한 것.

3. 현재 좌표 — 보조 지표

지표	값	현재가 대비
6/15 구간 고점	30,864.25	-5.07%
MA5 (5일 이동평균)	29,727.40	-1.44%
MA20 (20일 이동평균)	29,205.66	+0.32%
MA60 (60일 이동평균)	29,587.12	-0.97%
MA120 (120일 이동평균)	27,962.06	+4.79% (금리, 이란전 악재 증폭 시 최후의 가능한 저항선)

단기(MA5·MA60)선과는 소폭 이격, MA20은 근접 상회, MA120과는 여전히 큰 폭(+4.8%)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어 중장기 상승 구조 자체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판단됩니다.

4. 악화 시나리오 결합 — 금리인상 변수 및 이란전 변수

주인님 지시에 따라 (1) 금리인상 지속·추가 인상 (2) 이란전 확전이라는 두 변수가 동시에 악화되는 경우를 가정하여, 회귀 채널이 하방 이탈할 경우 지켜야 할 선을 산정합니다.

4-1. 금리인상 변수 — 현재 정황(웹검색 기준)

- 현재 Fed 기준금리 밴드: 3.50~3.75% 유지 중이며, 차기 FOMC는 2026년 9월 16일 예정
- CME FedWatch 기준 동결 확률 64.2%, 인상(375~400bp) 확률 35.8%로 시장이 인상 가능성을 상당 부분 반영 중
- 골드만삭스는 당초 2026년 12월~2027년 3월로 예상했던 금리인하 시점을 각각 2027년 6월·12월로 순연 — 연내 인하 없음 시나리오로 전망 수정

출처: Investing.com FED 금리 모니터링 도구, 비인크립토(2026-08 금 시세 전망) — 검색 시점 2026-08-20~21 기준

□ 8월말 FOMC의 가이드언스가 그 이전 핵심 같립길

□ 다만, 이란전은 월가의 경고로 인해 쉽게 악화되기는 어려움. 따라서 단기적으로 “금리”에 대한 상황변화가 핵심. 현재는 “불확실성 상황”이므로 금리를 인상하든 동결하든 그 결정을 내려주는 “가이드언스”가 8월달에 나와줘야 불안정한 변동성이 해결되고 이후 추가조정 혹은 반등 여부 결정된다고 봐야 함.

□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그들이 추진하는 “담보부 사금융 대출”에 대한 투자자의 반응을 동시에 살펴야 함. 해당 이슈는 웹 검색을 통해 알아보시길 추천.

4-2. 이란전 변수 — 현재 상황(직전 보고서 연계)

- 직전 나스닥·삼전닉스 회귀분석 보고서(7/25, 8/15 작성)에서 이미 확인된 바와 같이, 2차 이란전쟁은 8월 시점까지 지속 중이며 호르무즈 해협 관련 리스크가 유가·금리 경로에 구조적으로 연동되어 있음
- 직전 보고서의 4변수 다중회귀분석에서 '이란전쟁 더미' 변수가 $p=0.172$ (7/24 기준) → $p=0.0043$ (8/14 기준)으로 유의성을 회복 — 확전 국면이 실제 가격에 유의미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 중임이 통계적으로 뒷받침됨

4-3. 결합 논리

두 변수가 동시에 악화되는 경우(추가 금리인상 + 이란전 확전)는, 통상적 조정($\pm 1\sigma$ 이내)을 넘어 이례적 이탈 구간(-2σ)까지 하방을 시험할 수 있는 복합 악재로 판단됩니다. 이에 -2σ 수준을 '추세 이탈 시 지켜야 할 선'의 기준으로 삼습니다.

5. 지켜야 할 선 — 2σ 기준 방어선 (최악의 경우 저항선)

기준 시점	-2σ 방어선
2026-08-20 (현재)	28,040.19
+5거래일 후 (추세선 우상향 반영)	28,240.15
+10거래일 후	28,440.10
+20거래일 후	28,840.02

이 -2σ 방어선은 회귀 추세선의 기울기(+39.99pt/거래일)만큼 우상향하며 이동합니다. 즉 시간이 지날수록 절대 방어선 자체는 상승하나, 이는 '추세가 유지된다는 가정' 위에서의 산출값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.

- 8/20 현재 방어선(28,040)은 MA120(27,962.06)과 근접한 수준으로, 두 지표가 유사한 하단 지지 구간을 가리키고 있어 정황적 신뢰도를 보장합니다.

· 만약 금리인상·이란전 확전이 동시에 현실화되어 나스닥 선물이 이 -2σ 선(8/20 기준 28,040 부근)을 종가 기준으로 하향 이탈할 경우, 이는 3/31 이후 형성된 상승 회귀채널 자체의 통계적 붕괴로 해석할 수 있으며, 월간 구조 훼손 가능성을 재점검해야 하는 신호로 판단됩니다.

· 반대로 이 선을 지지선으로 유지한 채 반등할 경우, 현재의 하락은 채널 내 정상 조정으로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.

□ 과거 경험으로 볼 때 나스닥 5% 하락은 한국장의 최소 2배 이상의 하락을 연동시키며 반도체 섹터의 하락이 더 클 경우 그에 비례하여 증폭됨

□ 다만 어제 8/20일 장에서 나스닥의 급락 속에서도 반도체 섹터만 강세를 유지한 것은 유의미한 변화.

□ 나스닥 선물기준 오늘 급반등을 이끌어내면 지수변화에 따라 선물 일일 변화가 20일선에 맞춰지는 것이 현실. 따라서 오늘 (8/21일 밤) 나스닥은 추세 이탈 없는 조정을 끝내고 상승할 가능성도 있음. 끝까지 지켜봐야 함.

6. 종합 판단

- 현재(8/20) 나스닥 선물은 3/31 앵커 회귀 추세선 대비 -1.03σ 구간에 위치하며, 아직 이례적 이탈 구간에 진입하지 않은 정상 조정 국면입니다.
- 금리인상 변수는 9/16 FOMC를 전후로 불확실성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, 시장은 이미 상당한 인상 가능성(35.8%)을 선반영하고 있습니다.
- 이란전 변수는 직전 보고서의 다중회귀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된 실질적 하방 압력 요인입니다.
- 두 변수의 동시 악화를 가정할 경우, 8/20 기준 28,040 부근(추세선 -2σ , MA120과 근접)을 1차 방어선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며, 이 선의 중가 기준 하향 이탈 여부가 추세 지속·훼손을 가르는 핵심 관찰 포인트입니다.

이 분석이 가지는 한계

- $R^2=0.444$ 로 설명력이 중간 수준이며, 회귀 추세선만으로 방향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.
- -2σ 방어선은 '기존 추세가 유지된다'는 가정 하의 산출값으로, 추세 자체가 구조적으로 전환되면 이 선의 의미도 함께 변할 수 있습니다.
- 금리인상·이란전 악화는 사용자 지시에 따른 가정 시나리오이며, 실제 발생 확률이나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아닙니다.
- 웹검색 자료는 검색 시점(2026-08-20~21) 기준이며, 이후 상황 전개에 따라 빠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맥스페인, 감마 구조 등 옵션 파생 지표와 달리 이 분석은 선물 가격의 순수 시계열 회귀에 기반하며, 수급 데이터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

작성 기준: 2026년 8월 21일 / 나스닥 선물 원자료: 사용자 제공(일간, ~2026-08-20) / 시나리오 자료:

웹검색(Investing.com, 비인크립토 등) / 이란전 통계적 유의성: 직전 보고서(8.14일 기준 삼전닉스·나스닥 회귀분석) 연계 인용